

○ 보건의료특위는 정책과 직능의 2개 분과로 편성되어,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고문을 맡고 강창희 보건의료특위 위원장과 함께 특보 1인, 부위원장단 13인, 위원 8인, 자문위원단 28인, 사무국장 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부위원장 2인, 위원 1인의 추가 임명 과정을 거쳐 위원회 구성이 확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책분과인 1분과와 직능분과인 2분과로 나뉘어 운영할 계획이며, 각각 1분과 35인, 2분과 17인으로 구성되고, 1분과는 다시 2개 팀으로 나뉘어 1팀은 임상 현장 전문가 27인으로, 2팀은 공중보건과 공공의료 정책전문가 8인으로 구성 및 운영될 예정이다. 규모가 크고, 내실이 튼튼한 조직을 기반으로 전문성과 대국민 소통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브랜딩과 직능분과의 정책 권한 확대를 통해, 무너진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리부팅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다.

보건의료특위는 향후 정기 국회 정책 토론회(매월 1회), 분과별 주요 정책토론회(매주 1회)를 통해, 논의된 정책대안을 구체화 및 공약화 작업을 거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 2024년 의료대란 사태에 대응한 새로운 보건의료체계 설계 및 민주당의 보건의료정책 마련: 공약화
-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선진화된 K-보건의료 구축
- 공공, 지역의료 확충 및 필수의료 강화방안 재설계
-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 방안(의료-복지 통합 재설계)
- 지역 의사 확충 방안 마련
- 국가 정신보건 사업, 검진 사업의 효율성 제고
- 건강보험정책의 전면 재설계 및 개혁안 마련
(부과체계 개편, 급여재분배, 비효율적 구조개선, 장기요양)
- 사보험(실손보험) 기능 재정립
-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보건의료, 제약 산업 활성화 방안
- AI 기반 의료혁신 정책과제 도출 (제약-바이오, 디지털 헬스, 보건의료 빅데이터, 의료기기 등 산업 분야 전반)
- 기본사회에 부응하는 기본의료 설계 및 복지연계 구축
- 실현 가능한 남북 의료 협력 사업 정책 개발 및 제안

등 시급한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모두 포괄한 민주당 보건의료 정책의 효능감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기대된다.

강창희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위에서 국민을 위한 현장중심, 근거중심의 보건의료 정책대안을 만들고 다듬어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의료붕괴의 위기를 극복하고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 주체 모두가 수용 가능하고 무리 없이 정착 가능한 혁신적이고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의 새판을 짜겠습니다.” 고 포부를 밝혔다.

[첨부]

1.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출범식 사진 1 부. 끝.

